

3800 또는 무료시외전화 1800 648 911의 이문화정신건강센터 (Transcultural Mental Health Centre)에 연락하면 된다. 그리고 (02) 9878 2053의 정신분열증 우호회 (Schizophrenia Fellowship)에서는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격려와 정보를 주고 있다.



Korean  
17 May 1999

## 정신분열증

Why people with schizophrenia need your support

NSW Multicultural Health Communication Service  
website: <http://mhcs.health.nsw.gov.au>  
e-mail: [mhcs@sesahs.nsw.gov.au](mailto:mhcs@sesahs.nsw.gov.au)  
phone: (02) 9382 8111

**NSW HEALTH**  
DEPARTMENT

## 정신분열증

### Why people with schizophrenia need your support

17세의 윤군에게는 당뇨병이 있다. 당뇨병은 췌장의 화학물질 불균형에 의하여 생기는 병으로,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 윤군은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이 병 때문에 윤군이 다른 17세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는 친구들과 외출하여 재미있게 노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그러나 18세의 김양은 전혀 입장이 다르다. 김양도 2년 전에 한 장기의 화학물질 불균형에 의해 생기는 병을 진단 받았다. 그런데 김양은 그 병으로 인해 많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두 십대들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김양의 경우 화학물질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장기가 뇌이기 때문이다. 김양은 사고력에 지장을 주어 생각이 혼돈되는 질환인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환각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기도 한다. 김양의 친구들은 김양이 "이상하다" 또는 "신들렸다"고 말했다.

이 실화의 요점은, 사회가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다르게 취급하는지를 입증하는데 있다 - 이 병의 원인이 당뇨병이나 심장병처럼 생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종과 종교를 막론하고 전체 인구의 1-2 퍼센트가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분열증은 치료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을 만끽할 수 있으며,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으며, 자녀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증에 대한 허위가 비일비재하다.

정신분열증을 신의 저주를 받았다거나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허위들 중에 하나이다. 이런 생각들은 그릇된 것이며,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을 이중성격자라든가 정신박약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바르지 않다. 또한 정신분열증을 난폭성과 연관시키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사실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난폭하지 않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은, 특히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들을 남용하는 경우, 난폭해 질 수도 있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 덕분에, 김양의 정신분열증은 이제 악으로 잘 다스려 지고 있다.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은 (중독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 질환에 관련되는 화학물질의 불균형을 교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김양에게 친구들이 그녀를 "미치광이"라고 부르게 하던 증세들이 거의 없어졌다. 치료받기 전의 김양은 사고력의 혼돈으로 인해 말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했었다 - 한때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점차적으로 옛 친구들이 돌아오면서 김양은 다시 사회생활을 갖기 시작했다 - 그리고 김양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친구들도 정신분열증이라는 질환에 대해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분열증은 완치될 수는 없으나, 치료를 받으면 나아 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약물치료와 동시에, 사회로부터 격려를 받게 되면 치료효과가 엄청나게 커진다. 누구나 그렇듯이,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는 느낌을 갖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신분열증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은 청소년기나 20대 초반에 시작된다. 따라서 젊은 사람이 김양과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거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멀리 하거나,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 텔레비전의 사람들이 자기와 대화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생각), 그런 증세들이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분열증은 조기에 진단되어 치료받아야 치료효과가 크다.

정신분열증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 보고 싶거나, 한국어를 하는 정신건강전문인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02) 9840